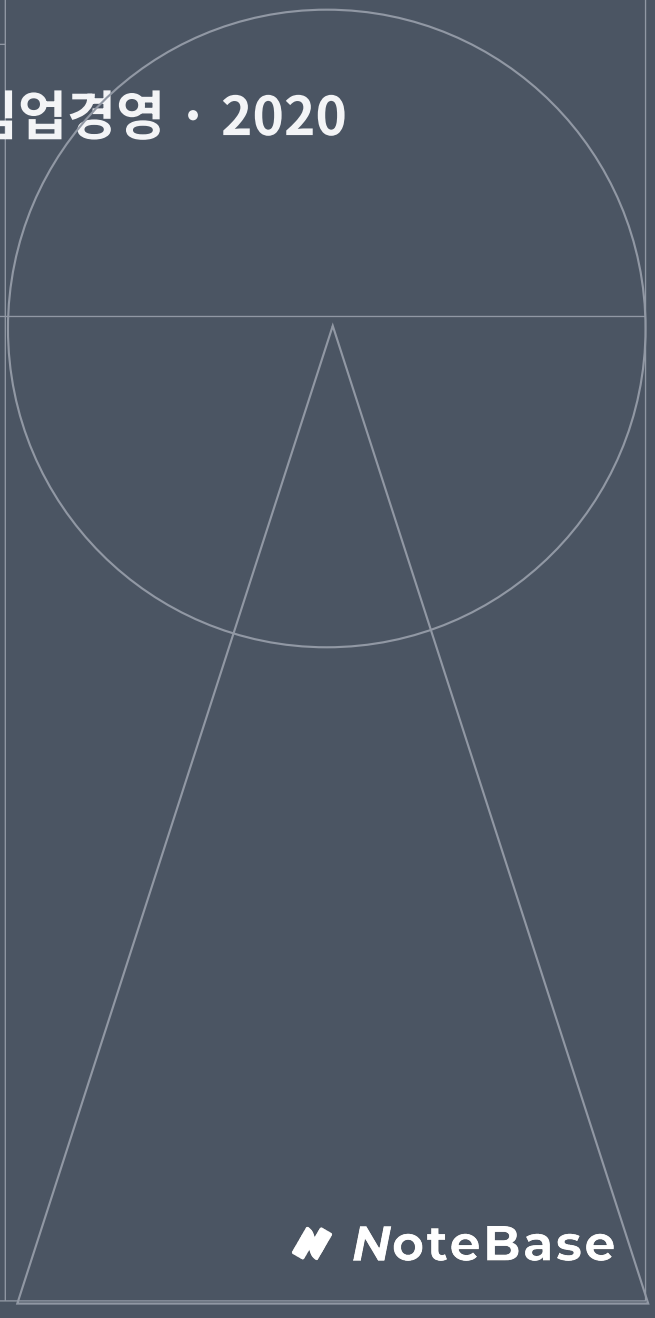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임업경영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임업경영 · 2020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임업경영 · 2020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임목 측정 도구는?

<보기>

나무의 연령을 알기 위해 목편을 삽출하는 기구로 목편의 연륜을 계산함으로써 임목의 연령을 추정한다.

① 하가 측고기 ② 윤척
③ 클리노미터 ④ 생장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나무의 연령을 조사하는 생장추와 수고·직경 등을 재는 임목 측정 도구의 용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장추는 나무줄기에 구멍을 내어 가느다란 목편을 채취하고, 그 목편의 연륜을 세어 임목의 연령을 추정하는 기구이다.
하가 측고기와 클리노미터는 주로 수고 측정에 이용하고, 윤척은 나무의 직경을 측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하가 측고기는 나무의 높이인 수고를 측정하는 기구이므로, 목편을 채취하여 연륜을 조사하는 기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하가 측고기'는 '생장추'로 고쳐야 한다.
② X — 윤척은 나무줄기를 양쪽에서 끼워 흉고직경 등 직경을 측정하는 기구이므로, 연령 추정용 목편을 채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윤척'은 '생장추'로 고쳐야 한다.
③ X — 클리노미터는 경사각을 재어 주로 수고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이므로, 줄기에서 목편을 뽑는 기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클리노미터'는 '생장추'로 고쳐야 한다.
④ O — 생장추는 줄기에서 가느다란 목편을 채취하고 그 목편의 연륜을 세어 임목의 연령을 추정하는 기구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모두 수고 측정에 쓰이는 도구이고 ②는 직경 측정 도구이다. '목편 채취'와 '연륜 계산'이라는 보기의 표현을 놓치면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측정 대상부터 구분한다. 연륜·연령과 목편 채취가 제시되면 생장추, 수고가 제시되면 측고기나 클리노미터, 직경이 제시되면 윤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장추는 목편·연륜·연령, 윤척은 직경, 측고기와 클리노미터는 수고이다.

NoteBase

2. 평균임령이 30년일 때, 영급을 나타낸 것은?

① 3영급 ② Ⅲ영급

③ 4영급 ④ Ⅳ영급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평균임령을 10년 단위의 영급으로 환산하고, 영급을 로마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평균임령 30년

구해야 할 값: 해당 영급과 올바른 표기

주의할 조건: 영급은 10년을 한 구간으로 하며 I, II, III, IV와 같이 로마 숫자로 나타낸다.

사용할 공식

영급 번호=≤ft임령10

영급은 임령을 10년씩 묶어 구분하므로 이 관계를 사용한다. 따라서 I영급은 1~10년, II영급은 11~20년, III영급은 21~30년, IV영급은 31~40년에 해당한다.

계산 과정

1. 평균임령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누면 30 ÷ 10 = 3이다.
2. 30년은 21~30년 구간에 속하므로 세 번째 영급이다.
3. 영급 번호를 로마 숫자로 표기하면 III영급이다.

선지 판단

① X — 30년이 세 번째 영급에 해당한다는 수치는 맞지만, 이 문항에서 영급은 로마 숫자로 나타내므로 '3영급'이 아니라 'III영급'으로 표기한다.

② O — 평균임령 30년은 21~30년 구간에 속하고, 세 번째 영급의 올바른 표기는 III영급이다.

③ X — '4영급'은 영급 번호와 표기가 모두 맞지 않는다. 30년은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영급이며, 올바르게는 'III영급'이다.

④ X — IV영급은 31~40년 구간이다. 평균임령 30년은 IV영급이 아니라 III영급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30을 10으로 나눈 값이 3이라는 데서 멈추어 ①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은 영급 구간뿐 아니라 로마 숫자 표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경계값 30년은 다음 구간인 IV영급이 아니라 21~30년 구간의 III영급에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균임령을 10년 단위 구간에 배치한 뒤, 구한 영급 번호를 로마 숫자로 바꾸어 선지와 대조한다. 10의 배수인 임령은 해당 구간의 끝값으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1~10년은 I, 11~20년은 II, 21~30년은 III, 31~40년은 IV영급이다.

NoteBase

3. 표준목을 측정하여 임분의 모양을 추정하는 표준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하르티히(Hartig)법은 각 직경급별로 본 수의 비율로 표준목을 고르는 방법이다.
② 단급법은 임분 전체에서 하나의 단면적 평균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입목의 크기가 일정한 임분에 적용한다.
③ 우리히(Urich)법은 전체 임분의 직경을 몇 개의 직경급으로 묶어 각 직경급의 단면적 합계가 같도록 묶는 방법이다.
④ 드라우트(Draudt)법은 전체 임분의 직경을 몇 개의 직경급으로 묶어 본 수가 같도록 소경목부터 묶고 각 직경급별로 표준목을 고르는 방법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표준목법의 각 방법이 임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표준목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목법은 임분을 대표하는 표준목을 선정하고 그 재적을 이용하여 임분 전체의 재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단목법: 임분 전체를 하나의 급으로 보고 단면적 평균목 한 그루를 표준목으로 선정한다. 임목의 크기가 비교적 균일한 임분에 적합하다.
드라우트법: 각 직경급의 본수에 비례하여 표준목 수를 배분한다.
우리히법: 임목을 소경목부터 배열한 뒤 본수가 같도록 여러 급으로 나누고 각 급에서 표준목을 선정한다.
하르티히법: 각 급의 단면적 합계가 같도록 임목을 여러 급으로 나누고 각 급에서 표준목을 선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하르티히법은 각 직경급별 본수의 비율로 표준목을 고른다'이다. 각 직경급의 본수에 비례하여 표준목을 배분하는 것은 드라우트법이다. 하르티히법은 각 급의 단면적 합계가 같도록 구분한다.
② O — 단목법은 임분 전체를 하나의 급으로 취급하여 단면적 평균목 한 그루를 표준목으로 선정하므로, 임목의 크기가 비교적 일정한 임분에 적용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우리히법은 각 직경급의 단면적 합계가 같도록 묶는다'이다. 단면적 합계가 같도록 나누는 것은 하르티히법이다. 우리히법은 각 급의 본수가 같도록 나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드라우트법은 본수가 같도록 소경목부터 묶는다'이다. 소경목부터 본수가 같은 급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히법이다. 드라우트법은 각 직경급의 본수에 비례하여 표준목 수를 배분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하르티히법·드라우트법·우리히법의 선정 기준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본수에 비례'는 드라우트법, '본수 동일'은 우리히법이라는 차이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표준목 배분 기준을 먼저 찾는다. 본수에 비례하면 드라우트법, 각 급의 본수가 같으면 우리히법, 각 급의 단면적 합계가 같으면 하르티히법, 임분 전체의 평균목 한 그루이면 단목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드라우트는 본수 비례, 우리히는 본수 동일, 하르티히는 단면적 동일, 단목법은 전체 평균목 한 그루이다.

NoteBase

4. 산림의 직접적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원 함양 기능
② 보건 휴양 기능
③ 임산물 생산 기능
④ 생활 환경 보전 기능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산림의 기능을 산림에서 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기능과 산림이 환경·공익에 기여하는 간접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림의 직접적 기능은 목재와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여 물질적 재화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산림의 간접적 기능은 수원 함양, 보건·휴양, 생활환경 보전처럼 산림이 환경을 조절하거나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수원 함양 기능은 산림이 빗물을 저장하고 유출을 조절하는 간접적·공익적 기능이다. 틀린 표현은 '직접적 기능으로서 수원 함양 기능'이며, 올바르게는 '간접적 기능으로서 수원 함양 기능'이다.
② X — 보건·휴양 기능은 산림 공간이 휴식과 건강 증진의 편익을 제공하는 간접적·공익적 기능이다. 틀린 표현은 '직접적 기능으로서 보건·휴양 기능'이며, 올바르게는 '간접적 기능으로서 보건·휴양 기능'이다.
③ O — 임산물 생산 기능은 목재 등 임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재화를 제공하므로 산림의 직접적 기능에 해당한다.
④ X — 생활환경 보전 기능은 대기 정화, 기후 완화 등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간접적·공익적 기능이다. 틀린 표현은 '직접적 기능으로서 생활환경 보전 기능'이며, 올바르게는 '간접적 기능으로서 생활환경 보전 기능'이다.

오답 포인트

수원 함양, 보건·휴양, 생활환경 보전도 산림이 실제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중요한 기능'과 '직접적 기능'은 같은 분류가 아니다. 선지 가운데 물질적 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③의 임산물 생산 기능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결과가 목재·임산물 같은 재화의 생산이면 직접적 기능으로 판단하고, 물 저장·휴양·환경 조절 같은 공익적 편익이면 간접적 기능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임산물 생산은 직접, 수원·휴양·환경 보전은 간접이다.

NoteBase

5. 임업경영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 기간이 대단히 길다.
② 임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
③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④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임업경영의 기술적 특성인 장기성, 성숙기의 불확정성, 자연조건 의존성, 토지·기후 조건에 대한 낮은 요구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업경영은 산림을 조성·보육하여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나무가 성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장이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산지나 척박지에도 적용할 수 있어 토지·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임목은 조림한 뒤 수확 가능한 크기로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생산 기간이 대단히 길다.

② O — 임목의 생장 속도와 수확 목적이 수종, 입지, 경영 목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숙기는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는다.

③ O — 임목은 장기간 야외에서 자라므로 토양, 강수량, 온도, 재해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이다. 임업은 농업적 이용이 어려운 산지나 척박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와 ④의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를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자연조건에 따라 생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과 경영에 필요한 토지·기후의 최소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업경영의 기술적 특성은 '생산은 장기적이고 성숙기는 불확정하며 자연의 영향은 크지만, 이용 가능한 토지·기후의 범위는 넓다'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임업은 생산 기간은 길고 자연 의존도는 높지만, 토지·기후에 대한 요구도는 낮다.

NoteBase

6. 우리나라 산림의 임상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① 죽림 ② 혼효림
③ 활엽수림 ④ 침엽수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 산림을 임상별로 구분했을 때 어느 임상이 가장 넓은지를 묻는 문제이다. 산림청의 2020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침엽수림의 면적 비율이 37%로 가장 높고, 활엽수림 32%, 혼효림 27%의 순이다.

핵심 개념

임상은 숲을 이루는 수종과 임관의 조성 등에 따라 나타나는 숲의 겉모양이다.
죽림: 대나무가 주로 자라는 숲이다.
혼효림: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섞여 있는 숲이다.
활엽수림: 활엽수가 우세한 숲이다.
침엽수림: 침엽수가 우세한 숲이며, 우리나라 임상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다.

선지별 해설

① X — 죽림은 대나무가 주를 이루는 숲이지만 우리나라 산림에서 가장 넓은 임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죽림'이며, 올바르게는 '침엽수림'이다.
② X — 혼효림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숲으로, 면적 비율이 침엽수림보다 낮다. 틀린 표현은 '혼효림'이며, 올바르게는 '침엽수림'이다.
③ X — 활엽수림은 활엽수가 우세한 숲이지만 면적 비율은 침엽수림보다 낮다. 틀린 표현은 '활엽수림'이며, 올바르게는 '침엽수림'이다.
④ O — 침엽수림은 우리나라 임상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자연천이의 진행이나 지역별 산림 모습만 떠올려 ③ 활엽수림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은 특정 지역이나 미래의 변화가 아니라 전국의 임상별 산림면적을 묻고 있으므로, 침엽수림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 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국 임상별 면적 순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침엽수림이 가장 넓고, 그다음이 활엽수림과 혼효림이라는 순서를 적용한다. 특정 지역이나 별도의 기준연도가 제시되면 그 자료의 수치를 우선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전국 임상 면적 1위는 침엽수림이다.

NoteBase

7. 원시림이 인간의 간섭을 받아 파괴된 뒤,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식물 종이 자연의 힘으로 회복되어 원래의 숲으로 다시 조성된 것은?
① 극상림(climax forest)
② 인공림(artificial forest)
③ 2차림(secondary forest)
④ 이령림(uneven-aged fores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위적 교란으로 파괴된 뒤 자연의 힘으로 다시 성립한 산림이 어떤 산림 유형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2차림은 벌채·산불·개간 같은 교란으로 기존 산림이 훼손된 뒤, 그 자리에 남아 있거나 새로 유입된 식생이 자연적으로 발달하여 다시 형성된 숲이다.
극상림은 천이가 진행되어 해당 환경에서 비교적 안정된 최종 단계의 숲이고, 인공림은 사람이 파종하거나 식재하여 조성한 숲이며, 이령림은 서로 다른 나이의 나무들이 함께 구성하는 숲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극상림은 천이의 최종 단계에서 환경과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이룬 숲이다. 원시림이 파괴된 뒤 자연적으로 회복된 숲을 가리키는 표현은 극상림이 아니라 2차림이다.

② X
인공림은 사람이 파종·식재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숲이다. 문제처럼 자연의 힘으로 회복된 숲은 인공림이 아니라 2차림이다.

③ O
2차림은 원래의 산림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 교란으로 파괴된 뒤 자연천이를 통해 다시 형성된 숲이다. 문제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이령림은 여러 연령급의 나무가 함께 섞여 있는 산림을 뜻하며, 산림의 연령 구조에 따른 구분이다. 파괴 뒤 자연적으로 회복된 숲이라는 성립 과정에 따른 명칭은 이령림이 아니라 2차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원래의 숲으로 다시 조성되었다’는 표현만 보고 천이의 안정 단계인 극상림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파괴된 뒤 자연의 힘으로 회복’되었다는 성립 과정이며, 이는 2차림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림을 구분할 때 먼저 기준을 확인한다. 파괴 후 자연 회복이라는 기원·성립 과정이면 2차림, 사람이 조성했으면 인공림, 천이의 안정된 최종 단계이면 극상림, 여러 나이의 나무가 섞였다는 연령 구조이면 이령림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파괴 후 자연 회복은 2차림, 사람의 식재는 인공림, 천이의 종착은 극상림, 여러 나이는 이령림이다.

NoteBase

8. 우리나라 임목의 재적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고는 1m 괄약을 적용한다.
② 흉고직경은 2cm 괄약을 적용한다.
③ 흉고직경은 지상고 1.2m 위치에서 측정한다.
④ 흉고직경이 8cm 이상인 입목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에서 임목 재적을 조사할 때 적용하는 수고와 흉고직경의 측정 단위·위치·대상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목 재적 측정은 임목의 부피를 산정하기 위해 수고와 흉고직경을 일정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수고는 1*m* 괄약, 흉고직경은 지상 1.2*m*에서 2*cm* 괄약으로 측정하며, 재적 측정 대상은 흉고직경 6*cm* 이상인 임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고는 1*m* 단위로 측정하고 그 미만은 반올림하므로 1*m* 괄약을 적용한다.
② O — 흉고직경은 2*cm* 간격의 직경급으로 괄약하여 기록한다.
③ O — 우리나라의 흉고직경은 지상 1.2*m* 높이에서 측정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흉고직경이 8*cm* 이상'이다. 올바르게는 흉고직경이 6*cm* 이상인 임목을 재적 측정 대상으로 한다.

오답 포인트

흉고직경을 2*cm* 괄약하면 8*cm* 직경급이 자주 등장하므로, 이를 측정 대상의 하한과 혼동하기 쉽다. 괄약 간격은 2*cm*이고 측정 대상의 하한은 6*cm*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적 측정 기준을 '수고 1*m*, 흉고직경 2*cm*, 측정 높이 1.2*m*, 대상 하한 6*cm*'의 네 수치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고 1, 직경 2, 높이 1.2, 대상 6으로 기억한다.

NoteBase

9. <보기>에서 설명하는 숲은?

<보기>

- 목재를 비롯하여 산채, 버섯, 나무열매 등 각종 임산물과 생화학 물질 등과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질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인공 조림 및 육림 관리, 임도 설치 등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용재 생산을 주목적으로 한다.

① 보안림 ② 생활림
③ 도시림 ④ 경제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숲의 주된 조성·관리 목적을 보고 숲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제림은 목재·임산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성·관리하는 숲이다. 이를 위해 인공조림, 육림, 임도 설치 등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가 이루어진다.
보안림은 재해 방지나 환경 보전 등 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숲이고, 생활림은 생활환경의 보전·휴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하는 숲이며, 도시림은 도시 지역의 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숲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보안림 X
보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질 생산'과 '용재 생산'은 보호 기능이 중심인 보안림이 아니라 경제림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경제림'이다.

② 생활림 X
생활림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휴양 등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중시하므로, 목재·임산물 생산을 통한 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경제림'이다.

③ 도시림 X
도시림은 도시 지역의 환경 개선, 경관 형성, 휴식 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므로, 육림·임도 설치를 통한 용재 생산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경제림'이다.

④ 경제림 O
목재·산채·버섯·나무열매·생화학 물질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인공조림·육림·임도 설치를 통해 용재 생산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두 설명이 모두 경제림의 목적과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산림이 환경 보전이나 휴양 기능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안림·생활림·도시림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보기에서 반복되는 핵심 표현은 '수익 창출', '물질 생산', '용재 생산'이므로 주된 목적이 생산인 경제림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숲의 명칭을 판단할 때는 부수적 기능보다 주된 조성·관리 목적을 확인한다. 목재·임산물 생산과 수익 창출, 인공조림·육림·임도 같은 생산 관리가 함께 제시되면 경제림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수익·용재는 경제림의 핵심 단서이다.

NoteBase

10. <보기>에서 설명하는 산림 관계 법률은?

<보기>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하며,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① 산지관리법 ② 산림조합법
③ 사방사업법 ④ 산림보호법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목적 조문의 핵심어를 보고 해당 산림 관계 법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이 「산림조합법」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자주적인 협동조직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결성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뜻한다. 「산림조합법」은 이러한 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핵심 구분

현행 「산림조합법」 제1조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산력 증진,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시문은 「산림조합법」의 목적 조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여 임업 발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법률이다. 제시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나 '구성원의 지위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다.
틀린 표현: 산지관리법
올바른 표현: 산림조합법

② O
산림조합법 제1조의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생산력 증진',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토를 보전하는 법률이다. 협동조직과 조합원 지위 향상에 관한 제시문과 다르다.
틀린 표현: 사방사업법
올바른 표현: 산림조합법

④ X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률이다. 제시문의 중심인 산림소유자·임업인의 협동조직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다.
틀린 표현: 산림보호법
올바른 표현: 산림조합법

오답 포인트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산력 증진'만 보고 일반적인 산림 관리 법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문구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과 '구성원의 지위 향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적 조문에서 규율 대상을 먼저 찾는다. '조합·협동조직·구성원의 지위 향상'이면 산림조합법,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면 산지관리법, '황폐지·산사태·사방사업'이면 사방사업법, '산림보호구역·산림 보호'이면 산림보호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협동조직과 구성원 지위 향상은 산림조합법이다.

NoteBase

11. 산림의 기능별 구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원함양림 ② 목재생산림
③ 버섯재배림 ④ 산림휴양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산림을 주된 기능에 따라 구분한 명칭과 임산물 재배·생산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림의 기능별 구분은 산림이 중점적으로 발휘하도록 관리할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원함양림, 목재생산림, 산지재해방지림, 생활환경보전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으로 구분한다. 버섯 재배는 임산물 생산 활동이므로 이러한 기능별 구분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원함양림은 물을 저장하고 수원 함양 기능을 높이도록 관리하는 기능별 산림이다.
② O — 목재생산림은 목재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발휘하도록 관리하는 산림이다.
③ X — '버섯재배림'은 산림의 기능별 구분 명칭이 아니다. 버섯 재배는 임산물 생산 활동이며, 기능별 산림 명칭으로는 '산지재해방지림' 등이 해당한다.
④ O — 산림휴양림은 휴양·보건 기능을 제공하도록 관리하는 기능별 산림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버섯재배림'도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이므로 기능별 산림처럼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분류 기준은 재배 품목이 아니라 산림이 중점적으로 발휘할 기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명칭이 물·목재·재해 방지·생활환경·자연환경·휴양처럼 산림의 주된 기능을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특정 임산물의 재배나 생산 방법을 나타내면 기능별 구분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별 산림은 수원·목재·재해·생활·자연·휴양이며, 버섯은 기능이 아니라 재배 품목이다.

NoteBase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국토보안 및 공공복리 증진
②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④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열거된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을 묻는다. 핵심은 조문에 명시된 다섯 가지 원칙과 그 밖의 산림 관련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은 국가가 국유림을 경영하고 관리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방향이다.

핵심 구분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은 ①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②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③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④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⑤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다. ‘국토보안 및 공공복리 증진’은 이 조문에 열거된 기본원칙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국토보안 및 공공복리 증진’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국토보안 및 공공복리 증진
올바른 표현: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② O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은 법 제3조제5호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③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법 제3조제2호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④ O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은 법 제3조제3호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국토보안 및 공공복리 증진’은 산림 관련 정책 목표처럼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제3조의 열거 문구는 아니다. 법령 문구 문제에서는 취지가 비슷한지를 판단하지 않고 조문에 실제로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3조의 원칙을 국가 전체의 이익,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산림의 공익기능, 국민의 삶의 질, 공·사유림 선도라는 다섯 축으로 나누어 선지의 핵심어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국가 이익·임산물 공급·공익기능·국민 이용·공사유림 선도가 제3조의 다섯 축이다.

NoteBase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산림 구획의 종류는?

<보기>

- 면적은 가급적 100ha 내외로 구획하고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이 가능하다.
- 구획은 능선, 하천 등 자연 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 경계선을 설정한다.
- 번호는 유역 하류에서 시계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 1, 2, 3, …으로 표기한다.

① 임반 ② 임황
③ 소반 ④ 경영 계획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면적, 경계 설정 방식, 번호 부여 방식으로 산림 구획의 종류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반은 산림을 경영·관리하기 위해 능선·하천·도로 등 비교적 변하지 않는 경계를 따라 나눈 기본 구획이다. 임반 안에서 임상이나 경영 방법이 다른 부분을 더 작게 나눈 구획이 소반이다. 보기의 약 100*ha*, 고정 경계, 아라비아숫자 연속 번호는 임반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임반은 대체로 약 100*ha* 내외로 구획하고, 능선·하천·도로 같은 고정적 경계를 이용하며, 유역 하류에서 시계방향으로 연속 번호를 붙이는 산림 구획이다. 보기의 세 조건이 모두 임반에 해당한다.
② X — 임황은 수종, 임령, 밀도 등 임분의 현재 상태를 뜻하므로, 일정 면적과 경계 및 번호를 가진 구획의 종류가 아니다. 틀린 표현 '임황'은 '임반'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소반은 임반 내부를 임상이나 경영 방법의 차이에 따라 더 작게 나눈 구획이다. 약 100*ha* 내외의 면적과 고정적 지형·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구획은 소반이 아니라 임반이다. 틀린 표현 '소반'은 '임반'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경영계획구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구역으로서 그 내부를 임반과 소반으로 구획한다. 보기에 제시된 기본 구획의 명칭은 경영계획구가 아니라 임반이다. 틀린 표현 '경영계획구'는 '임반'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임황'은 산림의 상태이고, '임반'과 '소반'은 공간 구획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특히 소반도 산림 구획이지만, 소반은 임반 안에서 임상·경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세분한 더 작은 단위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큰 자연·고정 경계와 연속 번호가 제시되면 임반으로 판단하고, 임반 내부의 수종·임령·작업 방법 차이에 따른 세분이면 소반으로 판단한다. 산림의 상태 자체를 묻는다면 임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임반은 고정 경계로 나눈 기본 구획, 소반은 임반 안의 세부 구획, 임황은 임분의 현재 상태이다.

NoteBase

14. 우리나라 사유림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유림의 경영은 산림의 공익성이 크므로 제한성이 많다.
②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숲이다.
③ 사유림은 우리나라의 전체 산림 면적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④ 사유림의 경영은 농업에 비해 단위 면적당 노동량과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유림의 소유 주체, 면적 비중, 경영의 공익성·집약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유림은 개인이나 사법인이 소유하는 산림이다. 산림은 목재 생산이라는 사적 이익뿐 아니라 수원 함양, 재해 방지, 탄소 흡수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므로, 사유림 경영에도 공익 확보를 위한 여러 제한이 따른다.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이라는 점에서 사유림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산림은 공익성이 크므로 사유림이라도 벌채·산지 이용 등 경영 활동에 공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제한이 많이 따른다.
② X — 틀린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숲'이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산림은 공유림이며, 사유림은 개인이나 사법인이 소유하는 산림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전체 산림 면적 중 26%'이다. 산림청 자료에서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약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올바르게는 '약 66%'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농업에 비해 단위 면적당 노동량과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이다. 임업은 생산 기간이 길고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조방적 경영의 성격이 강하므로, 올바르게는 농업보다 단위 면적당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적은 편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사유림과 공유림의 소유 주체를 바꾸어 놓았고, ③의 26%는 사유림이 아니라 국유림 비중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이다. ④는 임업의 장기성·조방성을 농업의 집약성과 반대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유림 관련 선지는 먼저 소유 주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유림의 높은 면적 비중과 산림의 공익성, 임업의 장기적·조방적 경영 특성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사유림은 개인·사법인 소유, 약 66%, 공익성에 따른 제한, 단위 면적당 저투입이다.

NoteBase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데이터 특성 중 래스터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벡터 데이터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위치 정보가 정확하다.
ㄴ. 데이터 구조가 간단한 모델이다.
ㄷ.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용이하다.
ㄹ. 무한한 속성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래스터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벡터 데이터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벡터 데이터는 점·선·면의 좌표로 공간 객체를 표현하며, 위치 정확도가 높고 객체별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쉽다. 반면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고 수집·처리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래스터 데이터는 공간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 셀로 표현하며, 구조가 단순하고 자료의 입력·중첩·분석이 비교적 쉽지만 셀 크기에 따라 위치 정확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ㄱ과 ㄹ은 벡터 데이터의 장점이고, ㄴ과 ㄷ은 벡터 데이터의 장점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위치 정보가 정확하다'는 맞지만, ㄴ의 '데이터 구조가 간단하다'는 틀리다. 올바르게는 벡터 데이터의 구조는 래스터 데이터보다 복잡하고, 데이터 구조가 간단한 것은 래스터 데이터의 장점이다.
② O — ㄱ의 높은 위치 정확도와 ㄹ의 다양한 속성정보 처리는 모두 벡터 데이터의 장점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③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벡터 데이터는 구조가 복잡하며, 좌표 입력과 위상 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여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래스터 데이터보다 용이하지 않다.
④ X — ㄹ은 맞지만, ㄷ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용이하다'는 틀리다. 올바르게는 벡터 데이터는 정밀한 좌표 입력과 편집이 필요하므로 수집 및 처리가 비교적 복잡하고, 수집 및 처리가 용이한 것은 래스터 데이터의 장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벡터 데이터가 정밀하다는 사실을 '구조와 처리도 단순하다'고 연결하면 틀린다. 이 문항에서는 정확도·속성정보는 벡터의 강점이고, 단순한 구조·용이한 수집 및 처리는 래스터의 강점이라는 대비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좌표 기반의 정밀한 위치와 객체별 속성 연결'이면 벡터의 장점으로, '격자 기반의 단순한 구조와 쉬운 입력·처리'이면 래스터의 장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벡터는 정확하고 속성이 풍부하지만 복잡하며, 래스터는 단순하고 처리하기 쉽지만 위치 정확도가 낮다.

NoteBase

16.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시 경사도의 구분으로 옳지 않게 짝지은 것은?
① 경사도 13° – 경사지
② 경사도 21° – 급경사지
③ 경사도 29° – 험준지
④ 경사도 34° – 절험지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산림경영계획서에 임지의 주경사도를 기재할 때 적용하는 경사도 등급을 묻는다. 핵심은 15도·20도·25도·30도의 경계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주경사도는 구획한 임지를 대표하는 경사도이다. 산림경영계획서에서는 이 각도에 따라 완경사지·경사지·급경사지·험준지·절험지로 구분한다.

핵심 구분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의 별표인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 따르면 완경사지는 15 ° 미만, 경사지는 15 ° 이상 20 ° 미만, 급경사지는 20 ° 이상 25 ° 미만, 험준지는 25 ° 이상 30 ° 미만, 절험지는 30 ° 이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13 °는 15 ° 미만이므로 경사지가 아니라 완경사지이다. 틀린 표현은 '경사도 13 °—경사지'이고, 올바른 표현은 '경사도 13 °—완경사지'이다.
② O — 21 °는 20 ° 이상 25 ° 미만이므로 급경사지이다.
③ O — 29 °는 25 ° 이상 30 ° 미만이므로 험준지이다.
④ O — 34 °는 30 ° 이상이므로 절험지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13 °를 경사지로 판단하는 것이 함정이다. 명칭상 경사가 있어 보여도 이 기준에서는 15 ° 미만을 모두 완경사지로 분류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계값 15도·20도·25도·30도를 확인한 뒤 주어진 각도가 들어가는 구간을 찾는다. 경계값 자체는 더 가파른 쪽 등급에 포함된다.

암기 포인트

15·20·25·30을 경계로 완ㅡ경ㅡ급ㅡ험ㅡ절 순서로 가팔라진다.

NoteBase

17. 임목의 평균생장량과 연년생장량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균생장량은 연년생장량보다 빨리 최댓값을 갖는다.
② 평균생장량과 연년생장량이 같아지기 전에는 연년생장량이 더 크다.
③ 임목은 평균생장량이 최댓값에 도달하는 시점에 벌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④ 평균생장량과 연년생장량이 같아지는 시기는 평균생장량이 최댓값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평균생장량과 연년생장량의 정의, 최댓값에 도달하는 순서, 두 생장량이 같아지는 시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균생장량(MAI)은 일정 임령까지의 총생장량을 그 임령으로 나눈 연평균 생장량으로, $MAI = V_t/t$이다.
연년생장량(CAI)은 특정 1년 동안 새로 증가한 생장량으로, $CAI_t = V_t - V_{t-1}$이다.
일반적으로 연년생장량이 먼저 최댓값에 도달한다. 그 뒤 연년생장량이 평균생장량보다 큰 동안 평균생장량은 계속 증가하고, 두 값이 같아지는 시점에 평균생장량이 최댓값에 도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평균생장량은 연년생장량보다 빨리 최댓값을 갖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연년생장량이 평균생장량보다 먼저 최댓값에 도달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O — 평균생장량과 연년생장량이 같아지는 시점 전에는 연년생장량이 평균생장량보다 크므로 평균생장량이 계속 증가한다.
③ O — 평균생장량이 최댓값인 임령은 단위 기간당 평균 재적생산량이 가장 큰 시점이므로, 재적생산을 기준으로 한 수확의 효율이 가장 높다.
④ O — 연년생장량과 평균생장량의 곡선이 만나는 시점은 평균생장량이 최댓값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오답 포인트

두 생장량이 같아지는 시점과 각각의 최댓값 도달 시점을 혼동하기 쉽다. 연년생장량은 그 교차점보다 앞서 이미 최댓값을 지나며, 교차점에서 최댓값이 되는 것은 평균생장량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년생장량과 평균생장량의 크기를 먼저 비교한다. 연년생장량이 더 크면 평균생장량은 증가하고, 두 값이 같으면 평균생장량이 최대이며, 연년생장량이 더 작아지면 평균생장량은 감소한다. 최댓값 도달 순서는 연년생장량이 먼저이고 평균생장량이 나중이다.

암기 포인트

연년생장량 최대가 먼저, 두 생장량의 교차점에서 평균생장량 최대이다.

NoteBase

18. 벌목용 집재기의 취득 원가가 500,000원, 내용연수 3년, 감가율이 0.5일 때 정률법에 따른 3차년도 감가상각비의 값[원]은?

① 31,250 ② 62,500
③ 75,000 ④ 12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률법에서 매년 기초 장부가액에 감가율을 곱하여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 원가: 500,000원
내용연수: 3년
감가율: 0.5
구해야 할 값: 3차년도 감가상각비
주의할 조건: 정률법은 매년 취득 원가가 아니라 감가상각 후 남은 기초 장부가액에 감가율을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정률법의 제 t차년도 감가상각비를 D_t, 취득 원가를 C, 감가율을 r라고 하면
$D_t = C(1-r)^{t-1}r$
정률법에서는 전년도 말 장부가액이 다음 연도의 기초 장부가액이 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차년도 감가상각비: 500,000원 × 0.5 = 250,000원
1차년도 말 장부가액: 50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2차년도 감가상각비: 250,000원 × 0.5 = 125,000원
2차년도 말 장부가액: 250,000원 - 125,000원 = 125,000원
3차년도 감가상각비: 125,000원 × 0.5 = 62,500원
따라서 3차년도 감가상각비는 62,5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31,250원은 3차년도 금액 62,500원에 감가율을 한 번 더 적용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3차년도 감가상각비가 62,500원이다.
② O — 2차년도 말 장부가액 125,000원에 감가율 0.5를 곱하면 62,50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 75,000원은 정률법에 따라 계산한 3차년도 감가상각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125,000원 × 0.5 = 62,500원이다.
④ X — 125,000원은 2차년도 감가상각비이자 2차년도 말 장부가액이다. 올바르게는 여기에 감가율 0.5를 다시 곱한 62,500원이 3차년도 감가상각비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125,000원을 3차년도 감가상각비로 착각하기 쉽다. 이 값은 2차년도 감가상각비이자 3차년도 계산을 시작할 때의 기초 장부가액이므로, 감가율 0.5를 한 번 더 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률법 문항에서는 연도별로 '기초 장부가액 × 감가율 =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을 다음 연도의 기초 장부가액으로 넘긴다.

암기 포인트

정률법은 같은 원가에 반복해서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줄어든 장부가액에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NoteBase

19. <보기>에서 설명하는 협약은?

<보기>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토의정서
② 기후변화협약
③ 생물다양성협약
④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환경협약의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지속 가능한 이용·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라는 세 요소를 생물다양성협약과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는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 자원 제공 측에도 정당하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뜻이다.

핵심 구분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해 기후변화 관련 협약은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대응이 중심이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사막화 방지와 가뭄 피해 완화가 중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다루는 기후변화 체제의 의정서이므로 보기의 세 가지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교토의정서
- 올바른 표현: 생물다양성협약

② X
- 기후변화협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여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중심이므로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 아니다.
- 틀린 표현: 기후변화협약
- 올바른 표현: 생물다양성협약

③ O
-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 목적이다.

④ X
-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사막화 방지와 가뭄의 피해 완화를 다루므로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 올바른 표현: 생물다양성협약

오답 포인트

‘지속 가능한 이용’만 보고 기후변화나 사막화 관련 협약을 고르면 안 된다. 보기의 결정적 표현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협약의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는 대상과 수단을 함께 확인한다. ‘생물다양성·유전자원·이익 공유’가 함께 나오면 생물다양성협약, ‘온실가스·기후변화’가 나오면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 ‘사막화·가뭄’이 나오면 유엔사막화방지협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축은 보전·지속 이용·이익 공유이다.

NoteBase

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보기>와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보기>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① 산림욕 ② 산림치유
③ 산림테라피 ④ 산림레포츠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제시된 활동과 법정 용어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연 요소를 활용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핵심 구분

현행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보기의 문장을 '산림치유'의 정의로 규정한다. 산림욕은 숲의 환경을 접하며 휴식하는 활동을 가리키고, 산림레포츠는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활동을 가리키므로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산림욕’은 숲의 공기와 환경을 접하며 휴식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보기에 제시된 제2조의 법정 용어가 아니다.
- 틀린 표현: 산림욕
- 올바른 표현: 산림치유

② O
-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은 법에서 정의한 ‘산림치유’이다.

③ X
- ‘산림테라피’는 산림치유와 관련하여 쓰일 수 있는 표현이지만, 제2조가 보기와 같이 정의한 정확한 법정 용어는 아니다.
- 틀린 표현: 산림테라피
- 올바른 표현: 산림치유

④ X
- ‘산림레포츠’는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활동을 뜻하므로, 면역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자연 요소를 활용하는 보기의 정의와 다르다.
- 틀린 표현: 산림레포츠
- 올바른 표현: 산림치유

오답 포인트

‘치유’라는 일상적 의미만 보고 산림욕이나 산림테라피를 고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비슷한 활동의 일반 명칭이 아니라 법률 제2조가 사용한 정확한 법정 용어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향기·경관 등 자연 요소 활용 → 인체 면역력 향상 → 건강 증진’이라는 정의의 세 요소가 함께 나오면 산림치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 요소를 활용해 면역력과 건강을 높이는 활동은 산림치유이다.

NoteBase